

In der Mitte von Reden und Schweigen

「말과 침묵의 한가운데에서」

도시의 변두리, 하노버-하인홀츠(Hannover-Hainholz)의 한 산업지구에 오래된 공장. 맞은편에는 주말농장들이 있고, 바로 옆에는 눈에 띄지 않는 다세대 주택들로 이루어진 소시민적 주거지역이 펼쳐져 있다. 볼트머슈트라세(Voltmerstrasse)의 이 공장에서는 지금도 천공판금(Lochblech)이 생산된다. 거칠고 투박한 산업 건축의 한가운데, 철제 외부 계단을 올라가면 하차연의 «Studio»에 이른다. 식사하고, 축하하고, 작업하고, 전시하기 위한 약 95제곱미터의 공간 — 이곳에서는 생활공간과 예술공간 사이의 구분을 거의 할 수 없다. 다중적인 기능이 이 공간을 규정하는 동시에, 그 명칭은 모호한 상태로 남는다.

사이에, 사이로, *between, entre, zwischen* = «둘의 한가운데에, 이중적인 것의 내부에».

스스로에 대해 «나는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밖에도 있다»고 말하는 하차연의 작업은 '사이'에 놓인 정체성과 말하기와 침묵 사이에서 지속되는 이중성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1983년부터 프랑스에서, 그리고 이어서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살아온 한국인 작가는 이처럼 우리에게 낯설면서도 동시에 익숙하게 다가오는 하나의 외브르(Œuvre)와 마주하게 한다.

이 첫인상은 스스로를 당당하게 «Zeittrampelin/시간 히치하이커»¹이라 칭하는 작가의 예술적 작업의 중심을 정확히 관통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이 작업은 우리가 이러한 작업들을, 혹은 적어도 이와 아주 유사한 작업들을 이미 여러 차례 보아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차연은 — 가장 가까운 의미에서의 «Avangardetradition/아방가르드 전통» 안에서 — 문자, 드로잉, 사진, 공간 설치, 조각 등 서로 다른 매체를 넘나들며 작업한다. 작가는 끊임없이 오브제 트루베(*objets trouvés*)를 자신의 작업에 끌어들이며, 오래전에 확장된 예술 개념이 열어놓은 가능성을 모든 장르적 구분을 가로질러 너무도 자연스럽게 활용한다.

이때 하차연이 전유하고 변형하는 재료들은 대개 자신이 직접 경험한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지점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작가는 여기에 대체로 시적이면서도 언제나 수수께끼 같은 의미론을 부여한다.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 이 작업들은 우리에게 기묘하게 낯선 채로 남는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혹은 적어도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 그토록 명료한 서사적 순간들과 뚜렷한 자전적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바로 그 때문에 그러한 것일까? 서로 촘촘하면서도 때로는 느슨하게 얹혀 있어 결코 하나의 의미로 명확하게 진술되지 않는 이 단서들 때문은 아닐까? 부유하는 상태로 남아 있는 다언어성과 신중한(말의) 침묵/유보, 즉 말하지 않음은 이 한국인 작가의 미학적 작업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동인이다.

다언어적이며 — 중복적인 — «Les mots & Die Wörter / 단어들»²은 따라서 이 다층적인 외브르를 위한 모토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우리의 환경을 지각하게 해주고 일상의 가장 평범한 사물들과 익숙한 방식으로 관계 맺을 수 있게 해주는 말들은, 유럽에서 10년을 살아온 뒤에도 여전히 작가에게 낯선 것으로 남아 있다. 그녀는 여전히 길 위에 있다. 따라서 미셸 푸코의 저서 «Die Ordnung der Dinge»가 프랑스어 원제에서

여전히 «les mots et les choses»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것처럼, ‘말과 사물’이 하차연의 전시 삼부작 «Auszug/ 이동, 발취»³에서 예술적 시선의 중심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외브르의 한 단면에서 서로 다른 기호체계들 사이의 문제적인 관계가 조용하고 신중하게 형태를 얻는다. 다언어성 속에서 주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사이’ — 그리고 언어화될 수 없음이다. 포스트모던 세계의 글로벌 빌리지에서 바벨탑의 건설은 하차연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적인 문제이다. 그녀 자신이 이미 네 개의 언어, 즉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속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집’처럼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작가의 책-오브제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차연의 경우 이 책-오브제들은 때로 종이가 아니라 투명하고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은 비닐지로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페이지들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단어가 빠져나가 버렸거나, 애초부터 페이지 바깥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새로운 말을 위한, 자기만의 어휘를 위한 자리가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것조차 아니다. 투명하고 매끄러운 비닐은 그러한 기입에 저항한다. 어떤 기호든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지워버릴 수 있으며, 표면에는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는다. 이것은 결코 깊은 의미를 지닌 프로이트적 밀랍판이 아니다. 기억의 문자가 그 안에 영원히 새겨져 남는 그런 밀랍판이 아니다. 오히려 문자나 단어로부터의 독립성, 즉 하나의 (웅변적인) 침묵이 여기에서는 음조를 결정한다.

하차연은 이 39부작 작업을 «Jahreslektüre/ 연간 독서»라고 명명함으로써, 뉴미디어에 걸맞은 웅변성이 지닌 ‘내용 없음’을 아이러니하게 지적한다. 그리고 의무적인 독서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실제로 그중 여섯 권은 1년에 여섯 차례 발행되는 «Kunstforum»과 같은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다. 12권의 녹회색 책들은 무엇보다 전형적인 잡지 형식 때문에 눈에 띈다. 이 «Jahreslektüre»의 모든 책은 서가에 놓인 채, 읽으라고 초대 한다기 보다는 적어도 책장을 넘겨보도록 유혹한다.

그렇게 책장을 넘기게 되면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는 시간 감각은 부조리한 것으로 전환된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이 ‘Zeittramperin’은 각각의 책 페이지를 «In der Mitte von beiden», 즉 정지와 진보의 ‘둘 사이 한가운데’에 묶어 놓았고, 그리하여 구체적인 진행 과정 내부에 역설적인 지속을 설치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페이지는 동시에 다음 페이지이며, 새로운 페이지인 동시에 이미 존재했던 동일한 페이지이다.

«Die Beschaffenheit des Menschen/ 인간의 본성»:

이젤 하나, 그 위에 놓인 그림 하나, 하나의 창문, 그리고 공간 바깥의 풍경 하나. 그림과 풍경은 동일하다. 따라서 이미지의 이중적 토대 위에서 재현하는 것과 재현된 것 사이에 단락, 즉 단락회로가 발생하고, 우리의 지각은 거의 충격적으로 교란된다.

마그리트에서 하차연으로:

브라운슈바이크의 한 아틀리에. 그 안에는 나무로 된 미닫이문 하나가 있다. 양면에 달린 문손잡이를 통해 이 문은 단순히 닫히고 열릴 뿐 아니라, 미닫이 레일 위에서 다양한 위치로 이동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통로가 열리는 동시에 바로 그 순간 막힐 뿐 아니라, «Tür/ 문»⁴을 통해 바라보는 시야의 범위와 아틀리에 창문을 통해 바깥으로 향하는 시야 역시 마치 조준경의 틈을 통해 바라보는 것처럼 변주된다. ‘현실’이라는 단순한 바닥

위에서, 이미지의 지지체를 생략하고 말하자면 그것을 침묵시킨 채, 우리의 지각이 지닌 한계가 공간 속에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문»이라는 작업은 우연과 계획, 공간적 관계와 자율성이라는 양극 사이를, 그리고 운동과 정지, 완결성과 과정이라는 대립 사이를 절제된 방식으로 오간다. 이 설치를 구조화하는 것은 어떤 흐릿한 «어느 쪽도 아닌»도, 어떤 경직된 «이것 아니면 저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구조화하는 것은 이들을 결합하는 «양쪽 모두»이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이 작업은 언제나 «이중적인 것의 내부에서» 서 있고/움직인다. 이를테면 아주 구체적으로, 절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열려 있는 공간 안에서 그러하다.

이렇게 하차연은 마그리트의 «초현실주의»에 특징적인 단락회로를 방지한다. 물론 여기에는 마그리트와 분명히 연관되어 있으며, 어쩌면 모든 예술에 불가결한 자기지시성이 존재한다. 대신 이항적 도식의 무의식적이면서 동시에 정밀하게 계산된 사용은 하나의 형식, 즉 «배제 가능성을 확보하는 형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⁵. 동등한 위치에 놓인, 거의 얼음처럼 냉정하게 느껴지는 대화가 자신의 조용하고 복잡한 놀이를 시작한다. 그 결과는 언제나 열려 있는 상태로 남는다. 왜냐하면 이중적 구성 덕분에 맥락적 편입 역시, 미학적 표현의 최종적이고 명확한 실현 역시 결코 위계적으로 고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들은 / 주사위들은 아직 던져지지 않았다.

Raimar Stange 라이마르 슈탕게, 1996

주

1. 하차연의 전시 삼부작 «Auszug» 가운데 현재 준비 중인 제3부의 제목이다. 이 전시는 볼트머슈트라세의 아틀리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 «Auszug» 제2부의 제목이다. 이 전시는 1994년 봄, 하노버-하인홀츠의 헬름케슈트라세에 있는 작가의 아틀리에에서 개최되었다. 작가가 사용한 사전들로 제작한 12권의 책 오브제 역시 이 제목을 지닌다.
3. 이 삼부작의 제1부는 1993년 가을, 하차연이 다녔던 HBK 브라운슈바이크에 설치되었다. 제목은 «Solo, la fin de série»이다.
4. «Solo, la fin de série» 기간에 전시되었다.
5. 참조: Niklas Luhmann, *Gesellschaftsstruktur und Semantik*, Frankfurt am Main, 1993, p. 301 이하.